

시론



주 흥
치유예술가

엄마의 그림책 자서전

“엄마, 우리 동네에 동구인문학당이 있는데요. 어르신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에 아버지와 엄마 두 분을 신청했는데 선정됐어요!”
“학교 문턱에도 못 갔는데 내가 자서전을 쓴다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게 자서전을 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나는 오빠와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부모님을 모시고 동구인문학당을 찾아가서 그림책 자서전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됐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아버지(1934년생·89세)는 초등학교를 다녔으나 한글이 아니라 일본어만 배우셨고, 형편이 어려워 그나마 졸업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1939년생·84세)는 초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성장하셨다. 한글이며 한자를 간판이나 기차역의 안내판 등을 보며 스스로 익히신 아버지-어머니께 자서전을 쓰는 일은

큰 부담이고 도전이었다.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책 자서전이니 그려본 적 없는 그림도 그려야만 된다. 아버지는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심 두렵워하셨다.
“엄마, 오빠와 제가 함께 가니까 걱정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동구인문학당 나들이 함께 해요.”
80살이 넘어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그림을 그리고 한글도 제대로 쓰지 어려운데 자서전을 쓰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는가? 엄마의 두려움을 당연하다.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을 배우고 직접 16편의 그림과 글을 쓰게 된 날, 아버지의 그림과 뽀뽀하게 쓴 글을 읽고, ‘부모님의 인생이 대한민국 민중의 근현대사를 품고 있구나!’하고 절절하게 느껴졌다.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시절 한 반도에서 가난한 민중의 자식으로 태어나 6·25전쟁을 거치며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이승만 대통령

아버지가 두 분 다 일제강점기에 탄광에서 일하셨다는 사실도 알았다. 할아버지는 지금은 갈 수 없는 가장 험한 곳 한반도 맨 위쪽 아오지탄광까지 징용을 가서 일하셨고, 외할아버지는 화산탄광에서 일하셨다. 해방 후, 청소년기에 6·25전쟁이 터져서 그 굶주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릿고개였다. 언제 이렇게 부모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는가! 동구인문학당의 어르신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부모님의 삶의 이야기를 모르고 이 귀한 시간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부모님의 그림과 글을 가족들과 한 컷씩 공유할 때마다 멀리 있는 언니와 동생들은 감탄하며 부모님과 통화가 길어졌고, 우리 가족은 화목한 시간의 선물을 받았다.
“나는 시멘트 틈에서 자라는 잡초처럼 태어났지만, 이제는 탐스럽고 아름다운 큰 꽃이 되었다”라고 하시며 “고생은 했지만, 진실하게 살았고 예한이 없구나! 자서전 제목을 ‘민초’라고 해야겠다.” 아버지의 이 한 마디가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공감되어 눈이 뜨거워졌다.
엄마는 한 컷 두 컷 바느질하듯이

그림을 그리시며 표현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어려운 시절, 자식만 바라보고 견딘 당시의 삶을 돌아보며 가난을 극복하고 육남매를 낳아 키우신 한 생을 정리하셨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셨던 엄마는 “내가 젊은 시절, 죽지 못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육남매를 낳아 잘 키우고 노후에 푸른길 공원을 산책하며 동네에 있는 인문학당에서 그림도 그리고 자서전을 쓰고 있구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시며 즐거워하셨다.
‘어르신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근현대, 일제강점기와 전쟁, 독재 치하에서 강인하고 선한 의지로 선택하며 그 시대를 살아낸 부모님 세대의 재발견이다. 동구인문학당에서는 갈 때마다 “이 프로그램 어떤가요?”하고 자주 질문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더 담아보려는 노력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진 공동체를 문화와 예술로 다정하게 엮어내고 있다. 동구민인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셨다. 섬세하고 친절한 동구청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순의 '문화터치'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총장로의 '도깨비골목'을 아시나요?

혹시 '도깨비 골목'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도깨비가 나오기라도 한단 건지 아니면 도깨비 놀이를 하는 곳이란 것인지. 보통 그 의미를 알면 알아차릴 수가 없다. 광주 금남로에서 총장로로 들어가는 어느 사이 길 끝목의 별칭이다. 총장로를 터전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한 상인이 가만히 귀뜸해준다. 오래 전 금세공 공장이 40여 군데 포진해 있었다. 그 골목을 지나가면 또다닥 또다, 작은 망치로 금을 다듬는 소리가 리드미컬하게 들리곤 했었다. 마치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드리는 소리처럼.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총장로가 한창 잘 나가던 시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또다닥 또다금을 두드리고 맞추는 소리가 들렸었다. 지금은 한 여섯 개 정도의 공장이 남아 간신히 그 명맥을 잇고 있을 뿐이다.
시니어들은 말한다. 예전 젊었을 적 '시내간다'고 했을 때의 '시내'는 총장로였다고. 그리고 모든 만남의 공간과 장소는 '시내'로 통했었다

고, 특별히 만나려고 하지 않아도 총장로 우체국 앞에 가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다방'으로 통했고 만남의 장소가 자연스레 우다방으로 정해지기도 했다. 총장로는 전남도청이 남쪽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명동 다음의 최대 소비상권으로 엄청난 번영을 누렸다.
총장로는 광주의 심장이었다. 무등산의 서기를 이어받아 시작된 곳 이 바로 광주읍성이고, 광주읍성은 총장로와 금남로를 터전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광주는 총장로를 중심으로 고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총장로를 제외시키고선 광주의 정체성을 논할 수 없다. 근·현대만 놓고 보더라도 그 가리드미컬하게 들리곤 했었다. 마치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드리는 소리처럼.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총장로가 한창 잘 나가던 시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또다닥 또다금을 두드리고 맞추는 소리가 들렸었다. 지금은 한 여섯 개 정도의 공장이 남아 간신히 그 명맥을 잇고 있을 뿐이다.
시니어들은 말한다. 예전 젊었을 적 '시내간다'고 했을 때의 '시내'는 총장로였다고. 그리고 모든 만남의 공간과 장소는 '시내'로 통했었다

지나지 않아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이 현재 롯데백화점에 자리잡았고, 거기서 가까운 4-5가는 도매상권의 핵심역할을 하였다. 종합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이전해간 80년대 후반까지 총장로 4-5가는 활기를 띠었다.
여기저기서 총장로를 살리자고 한다. 왜일까. 총장로는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장소성에 기인한 거다. 오랜 세월 문화의 현상이기도 하다. 실지로 80년 5·18광주민중화운동의 역사적 현상이 전남도청, 분수대, 금남로, 총장로를 아우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품어 낸 문화의 현상이기도 하다. 5월 거리축제 등이 그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광주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냈다.
총장로 되살리기의 시발점은 오래 전 시작된 총장로축제다. '7080 추억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 축제는 전국 최고의 축제라 각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추억팔이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축제로 컨셉으로 다시 추스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올해 '총장 르네상스' 계획을 세워 국비를 확보해놓은 상태다. 광주문화재단도 나섰다. 2022광주학살기록물의 테마로 '광주패션'을 잡았다. 광주패션은 총장로의 상권에 힘입어 최정성기를 누린다. 광주패션의 흔적을 찾아 재정립함으로써 광주의 문화자산이랄 수 있는 광주패션의 미래를 열어보자는 뜻에서다. 대중문화재단도 9월호 특집으로 '총장로'를 기획했다. 광주정신과 혼이 울드려 자란 곳이 총장로이기에 총장로를 알아야 광주를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다. 전국의 연인들이 총장로 도깨비 골목에 들러 자신들이 직접 디자인한 커플링을 줄을 서서 맞춰갈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재밌는 스토리를 찾아 전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총장로의 골목골목들이 살아 꿈틀거리게 하는 날이 분명 올 것이다. 그날을 위해 관과 상인, 문화기획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광주의 정체성을 가득 담고 있는 이 거리에 사람들이 찾아올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한다. 총장로를 살리고 도깨비 골목을 살리는 길은 이제 시작이다.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보이스피싱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코로나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고 관련 문자가 국민들께 전송되고 있다. 지원 정책의 접수 대상이며 지급성을 감안해 추경안을 단행하니 신청을 서두르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신청서류 압축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악성 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다.
일단 악성 코드가 설치된 휴대전화는 발신하는 모든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도 소용이 없게 된다.
또 범죄조직은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의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조회 실행, 가상자산까지 가로챌 수가 있다.
예전에는 자녀납치나 검찰 등 수

사기관을 사칭했다면 정부 지원 정책을 빙자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는 실정이다.
최근 높은 물가와 대출 이자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파일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피해까지 입게 된다면 회생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예방법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선하·고흥경찰서 경무계)

보행자 보호는 운전자의 선택 아닌 필수

지난 7월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운전방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방법 등 바뀐 규정에 대해 운전자들의 혼동이 여전하므로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를 위한 핵심 내용들을 알아보자.
먼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도 시

행하고 있는데 보행자 우선도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된 곳으로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의무가 부여되고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보행이 가능하다.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불이행 시 최대 9만원의 범칙금 또는 10점의 벌점이 부여될 수 있다.
보행자 보호는 운전자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차보다 보행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자. (김창희·곡성경찰서 경무계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국토조사 지표로 드러난 전남 소멸위험 심각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하는 국토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보고서는 인구·사회·토지·경제·생활·복지 등 분야별 통계를 200여 종의 지표로 제공한다. 특히 100m 크기 격자단위 인구 분포 및 건물 데이터, 250m, 500m 격자 크기의 생활인프라 접근성에 관한 공간통계를 생산함에 따라 전국 행정구역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고서는 해가 갈수록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전남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지역이 전국도의 14.3%로 2018년(13.3%)에 비해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남은 31.08%로 3년 전(28.49%) 보다 2.59%p 상승했다. 전북(2.61%p)에 이어 두번째다. 광주는 2018년 18.49%에서 2021년 18.26%로 0.23%p가 오히려 감소했다. 응급의료시설로부터 차량이동 20분 거리(10km) 내에 사는 전남 인구 비율은 77.57%에 달해 13위에 자리했다. 노후주택(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은 74.92%로 세번째로 높다. 전기차충전소 이용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4.06km로 강원, 경북,

충북 등과 함께 접근성이 떨어진 곳으로 분류됐다.
국토조사 보고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를 통해 국토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남의 취약한 여건을 고스란히 담아내 주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인천 수도권은 인구 비율이 50%를 돌파하며 집중도가 심해지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비수도권을 넘어서는 등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감소 소멸 위험지역으로 꼽히는 전남은 의료·교통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본 인프라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같은 사실을 재확인한 자료다.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와 지방소멸이 이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라 떠올랐다. 눈 앞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수립과 실천을 거듭 촉구한다.

농협도 무너진다...쌀값 안정 대통령이 쟁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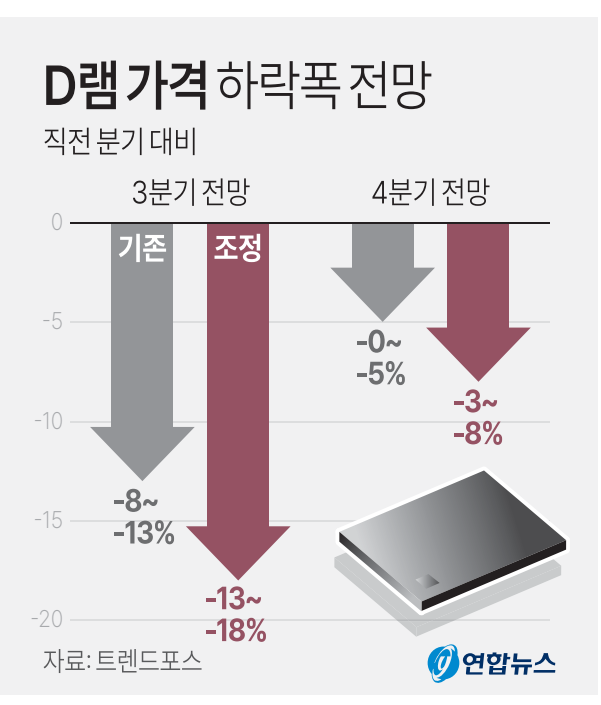
최근 80kg 당 산지 쌀값은 17만5천700원으로 전년 동기 22만3천400원 대비 21%가 폭락, 45년 만에 최대 폭 하락을 기록했다. 농협이 떠안고 있는 재고는 전년 보다 73%가 폭증한 41만대에 달하는 규모다. 전남이 10만, 전북이 7만6천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최악의 고물가 시대에 쌀 가격만 내리막을 걸으며 농가와 농협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쌀 수급 안정 정책을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3차 시장격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이나 많은 37만대를 격리했음에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수확기를 넘겨 지체된 시기와 역공매 방식의 문제 뿐만 아니라,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하물며 농업의 수장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안으로 제시된 2021년산 쌀 최소 10만t 이상 추가 격리, 정부·공공기관 등의 수급 및 상여금 쌀 쿠폰 지급,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및 쌀 상품권 발행, 이익 공유 차원 농산물 수입기업 국내산 쌀 구매 요청, 해외 원조 물량 확대로 대북 지원 및 해외 차관 추진, 국제식량기구(FAO) 권고 비축량 충족을 위한 수매물량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농민의 손해를 경감시키고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해온 농협까지 위기에 처했다. 영세한 지역은 경영이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 상황이 엄중하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 서 의원은 '최후의 보루마저 붕괴되고 있다'며 경고했다. 넘쳐나는 재고미 해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쌀 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진다. 쌀값 안정을 대통령이 직접 쟁겨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3분기 소비자 D램값 18% 하락...‘반도체의 겨울’성큼

올해 3분기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이 2분기보다 최대 18%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대만 보고서에서 공급 과잉과 재고 증가로 3분기 소비자용 D램 가격이 2분기보다 13~1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트렌드포스는 3분기 소비자용 D램 가격은 2분기보다 8~13%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이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이다. 트렌드포스는 또 “공급 과잉이 완화될 때까지 소비자용 D램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소비자용 D램 가격은 4분기에 3~8% 더 낮아질 것이고 지속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당초 4분기 하락 전망치는 0~5% 수준이었다.



소비자용 D램은 셋톱박스 및 스마트 TV, 인공지능(AI) 스피커, 사물인터넷(IoT) 등에 주로 쓰인다. PC와 서버, 모바일, 그래픽 등에 쓰이는 D램의 가격 전망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올해 6월 전 세계 반도체 판매량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드에 따르면 집적회로(IC) 판매량이 전월 대비 줄었다. 6월은 신학기 수요에 맞춰 생산을 늘리는 가전·IT 기기 제조업체들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많은 달로 꼽힌다.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6월 반도체 판매량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것은 1985년의 1%였다. 수요는 줄고 재고는 쌓이면서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72
정기부 650-2030	사건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실사부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